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최순실 사태’ 불똥

〈보이스카우트 세계야영대회〉

국가 신뢰도 하락·대통령 대외 유치 활동 불가능

내년 8월 투표 결정 ... 폴란드와 경쟁서 불리 ‘비상’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여파로 전북도와 부안군이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2023 세계잼버리대회 새만금 유치’ 사업이 동력을 잃고 있다.

특히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됨에 따라 사실상 대통령의 유치 활동이나 도움도 불가능하게 됐다. 반면 경쟁국인 폴란드는 전·현직 대통령들이 공동으로 대회 유치전에 뛰어드는 등 결집하고 있는 형국이다.

11일 전북도와 부안군 등에 따르면 전 세계 5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이 잼버리대회는 8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개최국은 내년 8월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세계스카우트연맹 총회에서 163개국 회원국의 투표로 결정되는데, 국내 후보자인 전북도(부안 새만금)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폴란드 역시 전 대통령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레흐 바웬사가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투표를 앞두고 각국 지도자들에게 서한을 보내는 등 적극적인 득표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폴란드의 대회 유치자인 그단스크는 바웬사가 자유노조 민주화운동을 시작한 곳으로, 국제적인 인지도면에서 새만금보다 앞선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그동안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안전’ 등에 대한 약속이 담긴 보증서 성격 서한문을 각국에 보내줄 것을 내심 기대해 왔으나, 이마저도 불가능하게 됐다.

오히려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대외이미지와 국가

신뢰도마저 하락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로 이어져 대회 유치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전북도와 부안군 등은 아프리카·유럽·중동·중남미 등에서 열린 지역별 잼버리 총회에 참석해 새만금 유치 홍보활동을 펼쳐왔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가지원을 의미하는 대통령 서한문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폴란드와의 경쟁에서도 불리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앞으로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와 함께 잼버리 유치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올해 대규모 통계조사 성공 기여

무안군,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무안군은 “통계청에서 실시한 2016년 대규모 통계조사의 성공적인 수행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획재정부 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2015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 2016 경제총조사 등 대규모 통계조사를 실시한 지자체와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기관표창 외에도 통계조사 관련 우수 공무원 4명과 조사요원 6명이 개인표창을 수상했다.

무안군은 대규모 통계조사를 실시하면서 언론 홍보와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했으며, 경험이 풍부한 조사요원을 선발하고 철저한 사전준비 및 체계적인 현장실사 및 내검을 성실히 수행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안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통계자료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높여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안=임동현기자 idh@



고창군 여성회관

교육생 작품 발표회

홈웨어 등 180여점 전시

박우정 (오른쪽 두번째)고창군수가 최근 고창문화의전당 전시실에서 열린 ‘2016 고창 여성회관 교육생 작품 발표회’를 둘러보고 있다.

전시 작품은 여성회관 교육과정 중 홈웨어, 웨바로드, 캘리그래피, 가죽공예, 손뜨개반 수강생들이 갖고 닦은 실력을 발휘해 손수 만든 180여 작품이다.

여성회관 교육은 고창군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올해 여성회관 교육은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상·하반기로 나눠 자격증반과 생활문화반 등 총 18개 과목으로 운영돼 380여 명이 교육을 수강했다.

/고창=고훈석기자 ghs@



고창군 부안면 구현마을에서 영화 ‘아홉고개 사람들’을 촬영하는 모습.

구현마을 주민들이 만든 영화 서울 상영

30분짜리 ‘아홉고개 사람들’

오늘 롯데시네마월드타워

주민 수가 40여 명에 불과한 조그만 시골 마을인 전북 고창군 구현마을 주민들이 기획하고 직접 배우로 출연한 영화가 제작돼 서울에서 상영된다.

11일 고창군에 따르면 부안면 구현마을은 영화 제작사의 도움을 받아 마을 주민들이 시나리오를 짜고 배우로 출연해 상영시간 30분짜리 ‘아홉고개 사람들’을 최근 제작했다.

‘아홉고개 사람들’은 서울영상미디어센터 주관으로 12일 서울 롯데시네마월드타워에서 열리는 한국영상문화제전 때 초청 상영된다.

구현마을에서 실제 일어난 일을 영상에 담은 이 영화는 구현마을의 구현골 문화자치회가 기획해 시나리오를 짜고

영화제작사인 ‘렌즈 테이블’의 이상휘·정성현 감독이 연기 지도와 제작을 맡았다.

이 영화는 농촌 마을의 한 촌로가 평생 농사만 짓다가 글을 배운 뒤 시까지 쓰는 과정, 옛사랑에 대한 그리움, 갑작스럽게 찾아온 병환과 죽음 등 일상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김연기 구현골문화자치회장은 “서로 지만 소박한 주민들의 몸짓을 영상에 담았다”며 “주민들이 직접 출연해 만든 영화가 서울에서 상영된다는 소식에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편 구현마을은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글 쓰는 마을’로 선정됐으며 작년에는 주민들의 시와 산문을 모은 ‘구현골 아홉고개 사람들-황토담장’에 벽화 꽃이 피었어요’라는 책을 발간하기도 했다.

/고창=고훈석기자 ghs@kwangju.co.kr

정읍 농가 벼 보급종 종자 신청 접수

23일까지 농업인상담소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오는 23일까지 각 읍면동 농업인상담소를 통해 2016년산 벼 보급종을 신청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신청 대상 품종은 신동진 72톤을 비롯한 새누리 67, 동진찰 77, 운광 28, 조평 6 등 총 5품종 250톤이다.

기술센터는 “올해 벼 등숙기에 잦은 비가 내린 탓에 종자 수발아에 이색에서 썩이 트는 현상” 등이 발생해 수확량과 발아율이 낮고 공급량도 전년 대비 58%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추가 우량 종자 확보를 위해 국립종자원과 협력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공급량이 부족한 만큼, 농가

자체적으로 우량종자 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내년에 공급되는 품종 모두 소독되지 않고 공급되는 만큼 소독(온탕+약제 혼용처리소독)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기술센터는 벼 종자 키다리병 방제를 위한 벼씨 소독 기술을 담은 리플릿 등을 제작, 배부하는 등 특별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보급종 종자 신청·공급 및 품종별 특성 등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농업기술센터 자원개발과 식량작물팀(063-539-6311~3) 또는 해당 농업인 상담소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군산시,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전북 최초 국제교육도시연합 동시 가입

군산시는 “유엔 산하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UNESCO GN-LO)에 정식 회원도시로 가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군산시는 평생교육 국제기관 양대 기구인 국제교육도시연합(IAEC)과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에 동시에 가입하는 도내 최초의 자치단체가 됐다.

이 네트워크는 국제 학습도시 간 교류와 정책 추진으로 균형 있는 지역발전, 우수사례 공유, 학술 출판, 국제세미나와 세계대회 개최, 유엔 연계사업 등을 추구한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문화교육과 평생교육 활성화 성과를 국제기구로부터 인정받았다”면서 “평생학습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기자 · 전북취재본부장 nogusu@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마을>

상업용지 / 주 택 / 투 자

1. 나주시 남평읍 오거리 국도변 1,118㎡(339) 상가, 사무실, 커피숍 최적지(신주택/구창고) 매 5억9천
2. 나주시 산포면 소재지 2차선 도로변 슬라브주택(2001년 준공) 99㎡ 공장198㎡ 대지823㎡ 투자유망 매 6억9천만원
3. 나주시 산포면 대성리 2차선도로변 계획관리지역 남향 2층슬라브주택 대지 655㎡ 건물 169㎡ 점포층층가능 매 3억3천만원
4. 나주시 세지면 소재지 상가 및 주택 대지 752㎡ 식당 175㎡ 주택 83㎡ 주차장 양호 매 3억5천만원
5. 나주시 봉황면 죽석리 연사무소 앞 한옥 기와 주택 및 점포 대지 315㎡ 임야 2,187㎡ 주택 96㎡ 공장75㎡ 점포26㎡ 매 2억원
6. 나주시 세지면 동곡리 대지 및 전 2,940㎡ 슬라브주택 99㎡ 부속 건물 66㎡ 신축5년경과 매 2억5천만원
7. 나주시 성북동 대지 및 전(2층주택 상가포함) 3,049㎡ 나주시내 중심지 2차선도로변 2층주거지역 상가 빌라 원룸 요양시설착합 축합아트 현대아파트매 매 22억

농 지 / 투 자

1.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전 배과수원 14,870㎡ 혁신도시인근 계획관리 생산관리 매 25억원
2. 나주시 금천면 월곡리 배과수원 및 대지 8,965㎡ 슬라브주택, 저운창고 매 8억5천만원
3. 나주시 산포면 산제리 전 3,300㎡ 2차선도로변코너 계획관리지역 혁신도시인근거리 투자유망 매 8억5천만원
4.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잡종지 8,311㎡ 보전관리지역 2차선도로 접합혁신도시인근거리 매 5억8천만원
5.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전 18,838㎡ 하우스농사중 2차선도로변 농림지역 22억원
6.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전 배과수원 5,655㎡ 4차선국도변 계획관리지역 혁신도시인근 투자유망 매 18억8천만원
7. 나주시 세지면 오희리 연소재지 18,495㎡ 2차선도로변 창고 농산물가공착합 매 2억2천만원
8. 나주시 대호동 전 5,068㎡ 도시지역, 자연녹지 투자유망 매 2억9천만원

나주시 남도공인중개사
이 준 상 T.010-9510-115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판선 · 전원주택지

- 정충군 안양면 수문해수욕장 2161㎡ 교환가능 3억3천
- 화산군 도곡면 드들강변 3694㎡ 전원주택 개발적합 5억1천5백
- 담양군 대덕면 알소리 993㎡, 599㎡, 665㎡ 평당 50만원

투자 · 매도 · 교환

- 함평 해보면 4차선도로접 1821㎡ 광고현과 최고 3억4천 상담비람
- 함평 해보면 문정리 2차선접 2520㎡ 투자에 적합 2억4천 상담비람
- 남구 사동 2층주거지 575㎡ 원룸적합 위치좋은 5억2천
- 광안구 고속도로에서 7분거리 1300㎡ 공장·창고적합 1억5천
- 공장착합 담양군 대덕면 8451㎡ 도로줄을 7억1천
- 양동 월산리출소부근 상업지 367㎡ 건물 신축 착합 5억2천
- 강진군 월천면 과수원과 주택 땅 21569㎡ 사할로 적합 5억원
- 담양 금성면 금성리 1265㎡ 전원생활적합 6500만원
- 담양군 풍산면 3365㎡ 아파트·병원 등 다용도 3억8600만원
- 나주시 노안면 5388㎡ 농장·전원생활용 교환가능 5억
- 광안구 송정동 주거지 611㎡ 투자에 적합 2억원
- 광안구 동산동 그린벨트 답 2638㎡(798평) 은행 8천 매도 1억2천
- 담양군 우정면 공장·창고부지 6338㎡ 3억6500
- 담양읍 터미널부근 답 4501㎡ 투자에 좋음 7억6천
- 북구 망월동 주거지역 430㎡ 차량통행 1억3천

상가건물

- 울림동 중심사임구 식당 땅 330㎡ 건평 327㎡ 9억2천
- 화정동 대로면 대지 235㎡ 건물 293㎡ 상가신축용 7억원
- 나주시 이창동 원룸건물 대지 337㎡ 방 16개 월 4000이상 수입 6억
- 도합 중흥동 대지 184㎡ 건물 652㎡ 은행 3억9천 교환가능 4억2천
- 백운로터리 부근 3층 상가주택 대지 126㎡ 건물 199㎡ 3억2천
- 유동 원룸건물 대지 238㎡ 건평 152평 원룸5, 투룸7 인접 매도 6억7700

주 택

- 월산동 새주택 임대 1층 방3 주차장 전에 50, 2층 방2 5백에 30
- 함평군 해보면 문정리 신축주택 대지 604㎡ 주택 99㎡ 1억3500

금 매

- 무안군 일로읍 농지 4933㎡ 대출 2억원 신고 3억7천 매도 7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영문앞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30-47번지 외 13필지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 토지 6000평 / 계획관리지역
- 시세 - 33억원
- 매매 - 협의

토지, 6000평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담양온천 1분 거리
- 전원주택 오토캠핑장 펜션 가든 온천 호텔 등등 모든업종 가능
- 개발 후 70억 이상 가치 있음
- 주인직매 H. 010-3605-500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은 길 64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능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